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김수진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 1 서론
- 2 5·18민주화운동과 ‘저항주체’로서의 여성
 - 2.1 ‘1980년 광주’, 국가의 입계와 담론정치
 - 2.2 5·18 이데올로기와 공백으로서의 ‘여성 주체’
- 3 5·18소설에 나타난 젠더 표상의 정치
 - 3.1 대항서사의 구성과 5·18의 젠더화
 - 3.1.1 ‘광주’의 민족사적 재맥락화와 여성의 주변화
 - 3.1.2 국가 폭력 비판 장치로서의 ‘어머니/누이의 수난사’
 - 3.1.3 영웅적인 남성 주체를 호출하는 부정적인 여성
 - 3.2 젠더/국가의 경계를 교란하는 ‘여성 서사’
 - 3.2.1 리얼리즘의 욕망과 여성의 주체화
 - 3.2.2 여성의 신체를 통한 가족/국가주의 균열
- 4 결론

본고는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김수진, 2016)을 요약한 것이다.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5·18이라는 사건이 기억/서사화되는 과정에서 젠더 중립적이 아니라 남성 주체를 중심으로 젠더화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5·18 소설에 나타나는 젠더 정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남성 주체를 내세우거나 여성들을 통해 남성 영웅을 호출하는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5·18 소설이 젠더 편향적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여성을 주체로 내세워 이러한 편향성을 깨트리는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젠더화된 5·18 기억/서사의 균열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 처음으로 발행된 광주항쟁소설집 『일어서는 땅』에서부터 2012년 출간된 『5월문학총서·2 소설』까지 5·18을 기념하기 위해 간행된 단편소설집들에 실린 작품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에 5·18 소설을 기억과 치유의 관점에서 읽어낸 연구들은 많았으나, 젠더의 시각에서 5·18 소설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5·18이라는 사건의 기억과 서사에서 망각되어 있던 여성 주체들을 불러내고 그러한 여성 주체들을 보여주는 소설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5·18 소설을 읽는 관점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5·18의 현재화 가능성 또한 모색해 보고자 한다.

5·18을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재현한다는 것¹은 단순히 1980년 5월 18일을 현재에 떠올리는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5·18이 원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고 이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5·18을 기억 속에서 복구하는 과정인 ‘현재화(Vergegenwärtigung)’²를 거치되 지금 여기서 5·18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현재의 우리가 관계를 맺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1 벤야민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도서출판 길, 2015, 334쪽.

2 “기억은, 그 실체와 의미가 완결된 어떤 과거의 사건들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기억작업에 대해 열려있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다시 말해,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된 사실이 아니라 기억의 작업이다. 즉 기억이 행하는 미메시스적 작업은 과거에 체험했던 것이 기억의 매체 속에서 복구되는 과정, 벤야민이 ‘현재화’라고 칭한 과정을 가리킨다.” 최성만, 「벤야민 횡단하기 II」, 『문학과학』 제47호, 문화과학사, 2006.9, 382쪽.

5·18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오월’은 열려 있어야”³ 하며 문학은 다른 과제를 찾고 다른 형상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문학 작품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은 문학이 “사실 내용을 진리내용으로 변형시”⁴켜 전달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아직도 5·18 소설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⁵ 희망적이다. 지속적인 작품의 창작은 5·18을 ‘현재화’하기 위한 실천이며, 5·18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화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지금-여기의 문제로 환기, 소환하는 작업인 것이다.

작품 창작과 더불어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5·18의 재현의 (불)가능성 문제와 5·18의 미학적 재구성 문제를 논하거나 5·18의 치유 (불)가능성 또는 애도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재현 프레임에서 벗어나 좀 더 다층적 관점에서 5·18 작품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 또한 5·18을 현재화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5·18 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중심에 ‘젠더’를 놓고자 한다. 그동안 젠더가 부재하거나 젠더 중립적이라는 미사여구로 교묘히 젠더화되어 있는 5·18의 기억/서사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독하려는 것이다. 젠더화된 기억/서사로서의 5·18 소설에서 여성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젠더의 시각으로 다시 독해하고자 한다.

2 5·18민주화운동과 ‘저항주체’로서의 여성

2.1 ‘1980년 광주’, 국가의 임계와 담론정치

5·18이라는 사건을 두고 국가와 5·18 유공자, 5·18 단체 관계자 등 간의 헤게

3 김형중, 『『봄날』 이후』,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 학술논문집1』, 5·18기념재단, 2006, 255쪽.

4 발터 벤야민, 앞의 책, 10-11쪽.

5 5·18 기념 재단의 주최로 시행되는 ‘5·18문학상’ 이외의 5·18 관련 최근 소설에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창비, 2014), 박솔뫼의 『그럼 무얼 부르지』(자음과 모음, 2014), 권여선의 『레가토』(창비, 2012) 등이 있다.

모니 장악을 위한 담론 정치는 198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먼저 5·18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신군부였다. 폭력으로 지배권을 획득한 군부는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지적·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담론을 형성, 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폭도론’, ‘불순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 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국가가 생산해낸 공식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은 5·18 기간 중 광주 시민들에 의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시민들이 제작한 유인물은 5월 19일 처음 「민주시민회보」⁶라는 명칭으로 배포되었고, 시민들이 유인물을 통해 폭도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것은 5월 24일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작성한 「대한민국 모든 지성인에게 고함」이라는 글부터였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 시민들의 노력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27일 계엄군에 의해 시민군이 진압되면서 계엄군이 의도했던 대로 ‘폭도’가 완성됨과 함께 ‘폭도의 반란’은 끝이 나버렸다.

5·18 이후 대항 담론은 1980년 6월부터 제기⁷되어 5·18을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의거’⁸로 명명하지만, 그 주체는 광주 시민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후 대항 담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전두환 정권의 퇴진운동과 함께 미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가의 강력한 학원통제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및 언론 통제로 이러한 대항 담론은 1983년 말까지 학원 밖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⁹

1983년 말 학원 자율화 조치 등의 유화 정책 실시로 5·18과 관련된 자료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대학가의 시위 역시 확산된다. 더불어 야당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신한민주당을 결성하고 1985년 2·12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5·18담론을 둘러싼 국가와의 담론 투쟁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치세력과 학생운동 세력, 시민운동 세력 등의 연대 조직이 만들어낸 대항 담론은 5·18의 진

6 「민주시민회보」는 4호부터 「투사회보」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포된다.
7 1980년 6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작성한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에서부터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권,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133-135쪽.
8 1981년 5월 전남도민 일동으로 작성된 「전남도민 5월 시국선언문」에서부터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의거’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위의 책, 218-220쪽.
9 전재호, 「5·18담론의 변화와 정치 변동」,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246쪽.

상 규명, 광주 학살 책임자의 처벌 등 5·18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같은 민주주의의 일반 문제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대항 담론은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었다.

6월 항쟁 이후 교체된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주도된 5·18담론을 폐기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대항 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태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두 번의 청문회로 전두환 정권의 5·18담론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 결국 전두환과 함께 노태우 또한 광주 학살의 주범이므로 5·18을 치유할 자격이 없으며 광주의 상처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이렇게 저항담론을 추구한 민중항쟁론과, 국가의 권력 담론과 타협한 민주화운동론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항 담론이 국가 주도 담론으로 흡수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을 이어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5·18 담론은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권력담론에 포섭됨으로써 일정 정도 국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18 담론의 국가승인 이후 5·18 담론 구성체는 이미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¹⁰

그러나 저항성의 상실로 대항 담론의 필요성,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가에 의한 공식 담론은 5·18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 담론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 운동이나 대중 운동과 같은 갈등의 형식이 아닌 다양한 담론 생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항 담론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2.2 5·18 이데올로기와 공백으로서의 ‘여성 주체’

10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111쪽.

지배세력과 대항세력은 대립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공모한다. 이 때 공모의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두 세력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상속받은 특정한 상징적 유산의 제약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세력과 대항세력은 일정 부분 동일한 의미화의 자원을 이용해 상동적인 의미화의 계열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로 대항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를 기각하고자 할 때, 이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작동하면서 이를 끊임없이 배반해야만 한다. 대항세력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략적으로 뒤집음으로써 상징적 지배 속에서 이미 구성된 주체 위치들을 새로운 정치적 정언명령의 이름으로 호명할 수 있다.¹¹

5·18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 지형 속에 놓여 있었다. 저항 세력인 광주 시민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투쟁한다. 5·18 당시 저항 공간인 광주를 지배했던 담론은 신군부(독재) 타도와 민주 사회의 건설이었다. 이 때의 민주주의는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 또한 5·18의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체제의 산물인 반공주의와도 결합되어 있었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지배이데올로기 속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이용하거나 그 속에서 투쟁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방법과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예가 태극기와 애국가가 5·18 당시 주요 실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5·18 저항 주체가 견지한 지배이데올로기는 이뿐이 아니었다. 제3공화국 이후 신유교주의와 군사주의의 영향 하에서 강화된 가부장적 지배는 5·18 저항주체가 의식하지 못한 제3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5·18 담론이 젠더 의식을 결여한 채 남성중심적 서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성은 열사나 전사와 같은 저항 주체로서의 자리를 부여받는데 비해, 여성은 비가시화되거나 보조자로 자리매김할 뿐이었다. 1980년 광주가 주권자(신군부)에 의해 ‘적’으로 분리되고 예외상태로 규정됨으로써 국가의 바깥으로 추방당했다면, 1980년 광주의 여성들은 추방당한 광주에서도 배제된 존재로 놓이게 된 것이다.

11 김재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1985~1991)—상징정치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14-15쪽.

그러나 5·18 당시 여성은 이미 주체적 자리에서 여러 활동을 했으며 그것도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대학생들 외에 항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사회운동 세력으로 노동운동 그룹인 광천공단의 들불야학과 JOC(가톨릭 노동청년회), 문화운동 세력인 극단 ‘광대’ 그룹, 여성운동 조직인 송백회¹² 등이 있었다. 항쟁 초기 18일부터 여성들의 참여는 두드러졌다. 18일 YWCA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교육이 실시되던 중 계엄군의 교육장 난입으로 인한, JOC 회원들의 가두시위 참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여고생들과 송백회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20일 이외 많은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가두시위에 가담하여 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해방기간(22일~26일) 전 항쟁 초기에는 항쟁 조직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여성들 또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피신해 있던 남성활동가들이 돌아온 해방기간 동안, 수습위가 결성되고 항쟁지도부가 조직되면서 남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된다. 즉 여성은 ‘남성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몇 명의 여성을 제외한,¹³ 5·18항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항쟁에 참여했고, 도청과 YWCA를 중심으로 연락업무, 선전활동, 물적 제공을 수행했던 여성들은 공식적인 정치적 조직 구성에서 배제되게 된다.¹⁴ 후방으로 물러난 여성들은 남성들이 총을 드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 절차와 물품보급, 자금확보, 취사, 유인물 제작과 선전 담당, 사망자 및 부상자 신원 파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항쟁 초기와 다르게 지도부가 형성되면서부터 여성들이 후방으로 물러나게

12 송백회는 1978년 11월 교사, 간호사, 노동자, 주부, 청년운동가 등 각 분야의 여성들과 민청학련 관련 구속자 가족들로 30여명이 광주 YWCA에 모여 결성되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향했던 독자적인 여성조직으로, 구속자 부인들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민주화와 여성해방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참여하면서 결성된 것이다. 이윤정, 「5월 민중항쟁과 여성운동: 송백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제4권 1호, 조선대 사회과학 연구원, 2011, 86쪽.

13 조아라 YWCA회장과 이애신 YWCA 총무는 ‘5·18광주사태 수습대책위원회’에 포함되고 김선옥(전남대학교 4학년)은 ‘학생수습위원회’에 포함된다.

14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4, 21쪽.

된 상황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는 5·18 이후에도 작동하여, 5·18의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여성들이 5월운동 조직으로부터도 배제되게 되며, 5·18에 직접 참여했던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했던 활동을 보잘 것 없는 일로 평가절하하게 만들거나 여성들이 침묵하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정통’ 역사학에서는 ‘현대사가 금기가 아니라 여성사가 금기라고 말해진다’¹⁵는 한 여성학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대사와 여성사를 따로 분리시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여성화’ 또는 ‘여성화된 침묵’이 현대사의 민감한 축 뒤에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미에 대한 침묵 그리고 여성들의 침묵’이 현대사의 폭력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새로운 역사의식과 언어와 감수성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 ‘침묵의 여성화’ 또는 ‘여성화된 침묵’을 깨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¹⁶ 그러므로 그동안 은폐되고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여성 주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5·18소설에 나타난 젠더 표상의 정치

3.1 대항서사의 구성과 5·18의 젠더화

3.1.1 ‘광주’의 민족사적 재맥락화와 여성의 주변화

5·18 소설은 시기적으로 “피해자(살아남은 자)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초기 재현물들의 특징이라면, 가해자/피해자의 선명한 이분법이 그 다음에, 가해자 역시 근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맨 마지막에 나왔다.”¹⁷ 5·18 소설의 대부분이 이러한 분류에 의해 편성되었고, 기존 연구에서도 그러한 범주의

15 이는 ‘정통’ 역사학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식민지 시대의 피해를 설명하는 사례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김은실, 「초국가적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식/ 언설의 정치학을 생각하며」, 『당대비평』 제14호, 생각의나무, 2001, 5쪽.

16 조은, 「침묵과 기억의 역사화: 여성·문화·이데올로기」, 『창작과 비평』 제112호, 창비, 2001, 88쪽.

17 김양선, 「광주 민중 항쟁 이후의 문학과 문화—젠더를 축으로 한 다시 읽기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8쪽.

틀에서 또는 그것을 변형하여 작품들을 설명해 왔다. 하지만 젠더 표상 방식에 의한 작품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틀은 달라지게 된다. 다수의 작품들이 여성 인물들은 부재한 가운데 남성 주체를 영웅으로 표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에 정찬의 「완전한 영혼」이 대표적이다.

5·18 당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군인들을 만류하는 장인하는 ‘절대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과도 관련이 없는,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장인하는 ‘완전한 영혼’인 것이다. 「완전한 영혼」은 장인하라는 인물을 통해 영웅적 남성을 불러내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영웅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영혼」과 동일하지만 이와는 달리 5·18을 민족의 저항의 역사와 연결지으려는 작품에 이창해의 「머나먼 광주」가 있다. 이 작품에는 여성 인물이 나오지만 이들은 비가시화되거나 주변화되고 있다.

「머나먼 광주」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5·18의 시원에 항일 운동인 ‘광주학생운동’을 위치시키고, 민족 저항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5·18을 맥락화한다. 5·18 소설에는 민족의 저항적 역사와 5·18을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남성성을 중심으로 가족이 권력화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에 속하지 못하는 여성, 어머니는 역사의 바깥으로 추방당한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삶은 아버지의 항일투사로서의 삶을 뒤에서 조용히 따르는 “고난의 길”(177)이었으며, “아버지가 받는 대접”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존심”(209)이 되는 동일시의 삶이었다. 이로써 어머니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소설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삶을 ‘나’에게 전달하는 목소리로만 존재하게 된다. 「머나먼 광주」는 이렇게 남성 주체를 통해 5·18을 민족사에 편입시켜 새로운 대항 서사를 만들어 가는 대신,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삭제하고 있다.

주변화되는 여성은 김중태의 소설 「모당」¹⁸에서도 드러난다. 이 소설은 어머

18 제목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이 소설은 다음 장에서 다루는 여성의 수난사와도 연결될 수 있다.

니가 아들을 만나러 외진 시골 바닷가로 가는 이야기로,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그녀의 낯두리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저항의 계보를 보여주며, 이는 곧 5·18의 계보가 된다. 억척같이 키워낸 아들이 피의 대물림으로 또 다시 전사가 될 때, 어머니는 “피는 어쩔 수 없구나 싶지만” 하여 “무너져내리는 한숨”(175)을 쉬며 순응할 뿐이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그녀에게 초점화되어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중심은 그녀가 아닌 ‘아들’에 놓여 있다. 그녀의 여정은 아들을 위한 것이며, 그녀의 말과 행동은 아들의 영웅적 면모를 두드러지게 한다. 「모당」에서 여성으로서 그녀는 5·18의 저항적 계보와 함께 전사로서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주변 장치로서 존재할 뿐이다.

3.1.2 국가 폭력 비판 장치로서의 ‘어머니/누이의 수난사’

5·18 소설에서 나타나는 민족사의 재맥락화와 그에 따른 젠더 정치의 여성 수난사 이야기로 이어진다. ‘순결한 처녀’, ‘헌신적 어머니’와 ‘창녀’라는 표상을 통해 민족사를 여성 수난사로 기술하는 구조는 이미 여러 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¹⁹ 5·18 서사 또한 여성들에게는 순결에 대한 철저한 집착을 요구하며 남성들에게는 초남성성을 요구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그러한 표상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주체와 타자의 위치로 각각 고정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어머니나 누이로 표상되는 여성은 초남성성을 지닌 영웅을 부각시켜 주는 존재로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의 수난을 헌신적인 어머니의 수난으로 드러내는 소설에는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한승원의 「당신들의 몬도가네」 등이 있다.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어머니, “사십 년 전 남쪽 끝 항구도시에서 일어났던 여순반란사건 때 행방불명이 된 큰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실신하여, 시름시

19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와 파시즘의 젠더 정치학」,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298-299쪽.

름 앓은 후에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뜬 어머니”²⁰와 5·18 때 행방불명된 아들 토마스를 찾다 실신하여 매년 오월이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아내는 중첩된다. 요셉의 어머니와 아내는 아들을 찾기 위해 헌신하는, 강인하고 굳건한 존재로 동일시되며 이러한 동일시는 개별적 주체의 모습은 삭제하고 여성을 모성의 표상으로 자리잡게 한다.

한승원의 「당신들의 몬도가네」는 희생과 헌신의 모성 표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나’는 이십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기성에게 안순 누님의 부고를 듣는다. 5·18로 인한 아들들의 죽음으로 안순 누님은 “산인지 들인지 불인지 찾길인지 사람인지를 모르고 헤매다”²¹이며 정신을 놓아버린다. 하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란 희망이 생긴 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파출부 노릇을 하면서 아들을 기다린다. 이 작품에서 안순 누님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광기까지 떨쳐 버리는, 희생적 어머니로 이상화된다.

이렇게 「일어서는 땅」, 「당신들의 몬도가네」에서 나타나는 여성 수난사 이야기에서, 모성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자기 헌신과 사랑을 통해 현실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로 신화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화 과정에서 어머니의 현실적인 고통은 사랑과 헌신으로 승화된 모성의 표상을 통해 지워져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상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성 인물이나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서 대리발화 되게 된다. 「당신들의 몬도가네」에서 안순 누님은 남성 주인공 ‘나’의 회상이나 친구 기성의 말을 통해 설명되며, 「일어서는 땅」은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요셉(토마스의 아버지)에 초점화되어 서술되고 있다.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여성 표상은 훼손되고 더럽혀진 여성을 드러내는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승원의 「어둠꽃」은 앞의 작품보다 좀더 치밀한 서술 방식을 보인다. 3절로 구성된 이 소설의 1, 3절은 남편 종남에게, 2절은 아내 순애에게 서술의 초점

20 문순태, 「일어서는 땅」,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17-118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21 한승원, 「당신들의 몬도가네」,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231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이 맞춰져 있다. 즉 이 작품은 공수부대원으로 5·18에 가담한 가해자인 종남의 시선과 5·18로 애인을 잃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서의 순애의 시선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 갈라세요. 나 미쳤어요. 더러운 여자예요.”

아내는 자기의 몸을 미친 듯이 탐하곤 하는 그에게 몸을 맡긴 채 이렇게 지껄었다. 마침내는 해수욕장엘 가서 윤간당한 일까지도 털어놓았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하고 어쩌면 상쇄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²²

「어둠꽃」에서 순애는 더럽혀진 여성, 곧 창녀로 표상되며 종남 또한 죄를 짓고 훼손된 인간이라는 점에서 둘은 동일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종남에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어 버린다. 이는 곧 창녀가 죄를 지은 인간들과 동일시되는 존재이자 구원의 대상으로 의미화되는 방식을 재현한 것이며, 이러한 재현 방식이 가해자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민간인 사살과 윤간의 피해가 동종의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등치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탈을 씌워주는 셈이며,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덮어씌우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족 수난사를 여성 수난사로 재현하는 방식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대립을 재생산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순결하게 정화하려는 욕망의 이면에 여성적인 것을 남성적 것으로 전유하려는 모순적인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²³ 따라서 여성 수난사 구조를 취하고 있는 5·18 서사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 서사는 될 수 있으나,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성 중심적 서사의 틀은 깨뜨리지는 못하며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고 있다.

22 한승원, 「어둠꽃」,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47-48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23 권명아, 앞의 글, 302쪽.

3.1.3 영웅적인 남성 주체를 호출하는 부정적인 여성

5·18 소설에 나타나는 또 다른 젠더 표상 방식으로, 남성 주체와 대립되는 부정적 여성 인물을 통해 남성 주체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은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는 오명을 여성에게 덧씌우는 대신 ‘전사’로서 남성을 불러낸다. 이러한 대립적 재현 양상은 육체적으로 허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약한 존재로서 여성을 부적합한 주체, 민중 공동체의 타자로 만든다. 이러한 여성 표상이 드러나는 작품에는 임철우의 「관광객들」과 박호재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이 있다.

임철우의 작품은 대학 선후배 관계인 양사장과 은애가 다케다와 동행하여 광주를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 은애라는 여성 인물은 소시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지식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은애는 5·18에 대한 소식을 이국에서 접하지만 ‘현명하게도’ 그런 문제에 한눈 팔지 않는다. 은애의 이런 모습은 독자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평 평 퍼평...은애는 술잔을 권 채 열결에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편 길 쪽을 내려다본다. 한때의 시민들이 합성을 지르며 어지러이 도망치고 있고, 그 뒤를 헬멧을 쓴 사내들이 우우 뒤쫓고 있는 차이다. 그것은 얼핏 아까 본 칠 년 전 그날의 사진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하다. 은애는 불현 듯 눈알이 따끔거리고 목이 아파오는 것만 같아서 부르르르 진저리를 친다. 아아, 어서 이 도시를 빠져나갔으면, 애당초 별생각도 없이 불쑥 따라나선 내가 불찰이지 뭐야.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²⁴

이 소설은 은애의 시선으로 서술되는 부분에 비중을 둬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부정적 인물인 은애에게 더 심리적 거리를 두게 만든다. 특히 호텔 안과 밖, 위와 아래로 공간을 분할하여 호텔에 있는 대상들을 부정하고 있는 위의 장면을, 은애의

24 임철우, 「관광객들」,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292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시선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여성 인물에 대한 부정적 반감은 강화된다. 스카이라운지에서 길 위를 내려다보는 관망자로서 은애는 올바르게 읽힌 정신과, 조그마한 최루탄 냄새에도 목이 아파오는 모습에서 허약한 신체를 소유한 부적절한 주체로 표상된다.

박호재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에서도 은애와 같은, 소시민적인 지식인 여성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지숙이 5·18 당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두 남동생—형석, 형수—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여기서 지숙은 두 남동생과 대립된다. 특히 학생 운동을 하는 형석은 언제나 지숙을 비웃는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던 지숙의 이유 있는 소시민성은 형석에 의해 부정된다. 이 소설에서 “그녀가 알 수 없는 먼 세상”²⁵을 꿈꾸고 있는 형석은 5·18에 참여한 투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지숙은 이러한 형석을 부각시키는 존재로 재현된다. 특히 지숙이 “식욕 없는 밥을 꾸역꾸역 떠놓고”(69) 나서 느끼는 햇것에 대한 은밀한 식욕과 “그 남자”에 대한 공상은 “불륜의 쾌락”으로 서술되고 있다.

지숙은 저항적 주체도 아니며 여성 수난사 구조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악취의 오물 통 속에 불쑥 발을 빠뜨린”(86) 더러운 존재, 부정되는 존재로만 재현된다. 즉 “주체성에 출몰하여 이미 구성된 것을 해체하도록 위협”²⁶하는 힘은 갖지 못하는, 단지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으로서 추방당하는 비체의 아류로서 지숙은 존재하는 것이다.

3.2 젠더/국가의 경계를 교란하는 ‘여성 서사’

3.2.1 리얼리즘의 욕망과 여성의 주체화

5·18 소설들은 “미적 형상화와 증언의 소명의식이라는 두 축 사이를 왕복하며 소설에 대한 평가와 해석 또한 이 스펙트럼 안에 위치한다. 알레고리와 환상성을

25 박호재, 「다시 그 거리에 서면」,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68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26 노엘 맥아피, 이부순 역,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피, 2007, 111쪽.

통해 금기의 시대에 접근하기도 하며, 역사의 복원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기록물에 근사한 서사방식을 취하기도 한다.”²⁷ 전자에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후자에 홍희담의 「깃발」이 위치한다. 1988년에 동일하게 발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이렇게 상반된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발표 당시에는 5·18의 복원이라는 의의로 홍희담의 작품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깃발」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위 계층—노동자(순분, 형자, 영순, 미숙, 철순, 영철), 중국집 배달부(김두칠), 구두닦이(소년) 등—들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이 작품은 남성노동자가 아닌 여성노동자들²⁸이 5·18에 참여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성으로서 단순히 1980년 5월 광주에 ‘존재함’이 아니라 ‘참여함’을 보여주는 소설인 것이다. 특히 형자는 다른 여성 인물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며 뚜렷한 정치의식까지 보여준다.

민중의 기본권이 박탈된 곳만 정확하게 파괴되었다. 이 사실은 이 항쟁이 절대로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폭도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 준다. 도청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청은 건재하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이다.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표현이다. 정치의 현실성을 획득하겠다는 행동이다.²⁹

기존 연구들이 여성이 5·18에 참여했다라도 의식의 각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여성의식 수준의 미비’에 대해 논한 것과 달리, 이 부분은 여성 인물들이 뚜렷한 정치의식과 함께 5·18의 의미 또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항쟁 마지막날 도청에 남은 형자의 모습은 여성이 부가적 존재로서의 타

27 이경,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더의 관점으로 5·18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7쪽.

28 기존의 논의들은 ‘여성’은 삭제한 채 ‘노동자’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방점은 ‘여성’에 놓여 있다.

29 홍희담, 「깃발」, 『꽃잎처럼』, 1995, 263-264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자가 아닌 항쟁의 주체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여성의 주체됨은 “주체 교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모색하고 역동적 서사를 구현해” 내는 것이며, “‘대안적 여성성’을 통해 남성적 질서와 담론을 해체하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끊임없이 허물어내”³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여성 주체의 출현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성 주체, 특히 하위 주체인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 재현 욕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형자는 걸장이 다 닳은 잡지책을 갖고 왔다. 『대화』지였다. ‘불타는 눈물’이 어찌 석정남 하나뿐이겠는가.

“언니, 이런 글이라면 우리도 쓸 수 있겠네.” 하고 순분이는 말했다.

“글이란 게 별게 아니야. 혼자서 간직하기엔 너무 벅찬 거 있잖니? 또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많잖어. 그런 일들을 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두 글재주가 있어야지.”

형자는 도서목록 중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였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순분이는 페이지를 넘겨보았지만 너무 어려웠다.

“뭐가 뭐지 모르겠네. 언니, 우리 얘기를 이상하게 써놓았잖아. 우리 얘긴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들은 작은 책자를 만들었다. 시도 있었고 수기,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수필 등등이 실렸다.(248)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 재현 욕구는 1980년의 문학론의 일부였던 민중문학론과 연결될 수 있다. 민중들이 “삶의 위상학과 분배체계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며 한국 민중주의의 중핵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때의 “‘쓰기’는 리터러시의 최고단계에 있는 것”이면서, “자기재현을 고정화·문자화하는 것이기에 구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 고도의 자발성(표현력과 표현욕구를 포함한)과 지성(자아와

30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공선옥, 송기숙, 최윤, 홍희담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2, 272-275쪽.

세계에 대한 나름의 해석)”으로 이뤄진 것이었다.³¹ 이렇게 리터러시의 최고단계에 놓인 민중의 글쓰기 맥락에서 형자와 순분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작품의 또 다른 주체인 작가 홍희담의 자기재현 욕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홍희담(본명 홍희운)은 5·18 당시 송백회의 총무³²로, 이 여성단체의 실질적이고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2.절에서 제시한 바 있는 송백회는 1979년부터 이미 여성 노동자와 여성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과학과 여성문제 학습 모임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쟁 당시에는 YWCA를 베이스캠프로 항쟁지도부를 결성하여 도청지도부와 함께 결사항쟁 투쟁의 전의를 다지며, 선전업무, 물품지원 및 자금지원, 식량공급, 화염병제작, 부상자 파악, 시체염 등을 담당하였다.

홍희담은 5·18에 직접 참여한 여성 주체로서, 그 잇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경험을 소설 「깃발」에 담아내고 있다. 즉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있”³³었던 여성으로서 이 소설을 재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소설은 “‘사건’ 내부의 ‘현실’은 그곳에 있는 자 즉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사건’의 외부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비판적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³⁴ 결국 이 소설은 5·18 소설에서의 주체의 교체를 보이며, 5·18에 직접 참여했던 여성 주체를 통해 여성들의 자기 재현 욕구를 반영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3.2.2 여성의 신체를 통한 가족/국가주의 균열

31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중문학사연구』 제47권, 민중문학사학회·민중문학사연구소, 2011, 232-237쪽.

32 1978년 송백회가 결성될 때부터 총무를 맡았으며 1979년부터는 YWCA 이사도 역임하고 있었다.

33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있는 자는 찬 물에 손을 넣고 있는 자와 똑같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오카마리,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 2004, 37쪽.

34 오카마리, 앞의 책, 37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18 담론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남성으로 대표되는 ‘열사’, ‘전사(투사)’와 희생자로서 ‘어머니’, ‘누이’라는 주체의 위치를 생산·부각한다. 이러한 가족에의 은유가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녀는 가족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오빠와 엄마의 부재(죽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죽음, 존재하지 않음) 또한 겪고 있다. 가족담론에서 국가가 가정이라면, 독재자였던 대통령은 상징계의 대타자로서 아버지이며, 아버지의 부재는 이러한 대타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소녀는 새로운 국가(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오빠(‘열사’, ‘전사’)를 찾아 여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 대상인 오빠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다.³⁵

여기에서 기존의 가족 담론을 교란하는 지점으로 ‘엄마의 죽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마는 “작년 가을부터 이상해졌”³⁶다. 오빠의 부고를 들은 후부터 “시장을 그만두고 무슨 다른 일을 준비”(159)하기 시작했다. “꼭 다문 입술에 마른 눈자위, 그을린 뺨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옆도 보지 않고 고개는 먼 곳을 깨끗하게 쳐들고”(177) 엄마는 시내로 “바쁘게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210) 그리고 “종이 쪽지를 읽어 달라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편지(탄원서)를 불러서 쓰게”(177) 했다. 엄마는 “점점 더 내가 모르는 일에 열중”(212)했고, 바로 그날, 엄마는 “다른 춤추는 학”들과 함께 시내로 “학처럼 춤추러 갔”다. 엄마는 내 손을 으스스하게 움켜잡고 “파도의 밀물 썰물”처럼 “앞으로 나갔다가 밀물처럼 밀려오곤” 했다. 그때 엄마의 얼굴은 “불그스레하게 빛나” 눈이 부실 정도였다.(217-218)

엄마의 이러한 변화는 주체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마는 오빠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태어난 자’이며, 단지 자식의 보조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소녀의 엄마는 ‘투쟁하는 어머니’로서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하는 어머니’로 표상되는 여성의 정체성은 “성차

35 학생운동을 하던 오빠의 죽음은 작년 가을(1979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엄마에게 “흰 봉투”를 두고 간 것에서 추측가능하다.

36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꽃잎처럼』, 1995. 160쪽. 앞으로 소설 지문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적도록 함.

를 남성모델에 맞춰 무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정치적 장으로의 진입을 가능”³⁷하게 한다.

‘조국의 수난사’로 표상되는 어머니 또는 소녀의 엄마와 같은 ‘투쟁하는 어머니’는 정치의 장 속으로 불러지긴 했지만 ‘딸’³⁸은 ‘어머니’와 달리 가족담론 속에 안정적인, 상징적 지위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소설은 소녀를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딸’의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며, ‘딸’을 주체로서 정치적 장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서사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미숙한 ‘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광기에 어려 있는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국가 폭력(5·18)을 불안전하면서 불안한 신체로써, 침묵과 독백, 파열로써 드러내는 것은,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으로 지고」를 ‘딸’의 서사에 의해 정치적 장으로 투입하려는 시도³⁹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 소설은 다성화자의 시점을 취하고 있어 소녀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시점의 분할은 일관되고 선형적인 기억이 아닌 파편화된 기억의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 소설의 파편화된 서사는 소녀의 광기에 연유한 것으로, 광기에 어린 소녀의 시점으로 다 드러낼 수 없는 내용들을 서술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가며 소녀에 의한 ‘딸’의 서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소녀는 오빠를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여행은 소녀의 머리에 새겨진 검은 휘장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7장에서 기차 “유리창

37 김재은, 앞의 글, 77쪽.

38 여기서는 ‘누이’라는 용어를 ‘딸’로 대체한다. ‘누이’는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룰 때 쓰는 말로 흔히 여동생을 말한다. 즉 ‘누이’는 ‘오빠’에 의해서 위치 지어지고 규정되는 말이며, 기존의 젠더화된 담론에서 남성 주체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그보다 계층적, 젠더적으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39 여기서 소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녀는 증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녀의 증언이 갖는 위상이, 수행적 의미가 정치적 의미를 이미 부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 비친 얼굴”(194), 소녀의 또 다른 자아는 “더러운 벌레처럼 우글거리는 기억들”(197)을 기억해 내라고 종용하는데, 그 기억은 바로 “오랫동안 도망쳐도 내 뒤에 꼭 붙어 따라오는 그날”(199)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려줄 것을 “너무 열렬히 바랐기에”(199)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 검은 휘장임을 소녀는 깨닫는다. 2장에서부터 9장으로 이어지는 소녀의 여행은 분열된 자아를 조우함으로써 검은 휘장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걷어냄과 동시에 그날에 있었던 원죄의식과 대면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여행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다. 소녀의 여행 목적은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말로 엮어낼 수도 없는 그날”(217)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때 증언의 청자는 오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여든 그들 앞에서 더 늦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말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하는데 자꾸만 바닥에 자석이 달린 것처럼 나를 잡아당겼어.”(198)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녀는 이미 기차에 탄 사람들을 향해 증언하려고 했으며, 이는 증언의 대상과 내용을, 사건의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5·18로 확장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소녀의 모든 이야기는 내적 독백이었다는 점이다. 소녀의 발화는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없다. 즉 5·18을 경험한 자로서 소녀의 목소리에 의해서는 그 날이 전달, 증언되지 못하는 것이다. 5·18은 결코 ‘말’이라는 도구로는 전달할 수 없는, 증언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다. 5·18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말로 증언될 수 없다면 5·18은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될 수 있을까?

‘남자’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에서 소녀를 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남자’는 소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다. 처음 ‘남자’에게 소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었”(148)다. 그리고 ‘우리’는 소녀가 누구인지, 소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소녀를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 ‘남자’와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같은 자리에 위치한다.

웃음, 침묵, 상처, 표정, 마멸된 단어, 인격의 부재(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녀는 ‘남자’에게 비쳐진다. 이를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이야기되는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침묵, 신음, 그리고 몸부림이 이야기하는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⁴⁰이어야 한다는 말의 연속선에서 생각해 보면, ‘남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녀에게서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언들을 통해 소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 5·18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 ‘우리’는 소녀의 뒤를 추적하며 소녀를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거나 그것을 통해 소녀를 추측할 뿐이다. 옥포댁과 김상태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소녀의 말이 아닌, 행동이나 표정, 파열된 단어를 통해 소녀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소녀에 대한 파편같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몸은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얼굴들을 녹음해두느라 피폐해졌을지도 모른다.”(165)거나 “그녀가 살불이와 생면부지의 사람을 혼동하고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고 잊어버렸을 때에도 육체만은 어느 구석엔가 사건의 냄새를 녹음해”(192) 두고 있다고 추측한다. 즉 소녀는 5·18의 기억을 ‘몸’을 통해 녹음(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카 마리는 “‘사건’으로서의 증언, 그것을 만들고 있던 것은 거기에서 발설된 이러저러한 말의 단편—더듬거림과 말실수,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과 침묵,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온 한숨과 그 입김, 방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밀도—그것들 모두가 ‘사건’의 증언은 아니었을까.”⁴¹라고 말한다. 바로 소녀의 전달되지 않는(독자에게만 전달되는) 내적 독백, 웃음, 침묵, 표정, 중얼거림, 마모된 단어 등은 다름 아닌 ‘사건’의 증언이다. 따라서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그동안 정치적 장에서 배제되었던 ‘딸’의 언어를 통해 5·18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서사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5·18의 현재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5·18 소설을 젠더적 관점에서 재독해 보았다. 5·18 소설을 기억과 치유의 문제로 해석하는 연구들은 많았으나, 젠더화되어 있는 5·18 기억/서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40 오카 마리, 앞의 책, 86쪽.

41 오카마리, 앞의 책, 170-171쪽

가지고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고는 『일어서는 땅』, 『부활의 도시』, 『꽃잎처럼』, 『밤꽃』, 『5월문학총서·2 소설』에 실린 소설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남성 주체를 중심으로 한 5·18 기억/서사의 젠더 편향성을 분석하고 여성 주체를 내세워 젠더/국가의 경계를 교란하는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편향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전까지 아무 것도 기억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사회였다. “참담한 역사적 오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청산된 적 없고, ‘매판’과 학살 그리고 국가 폭력을 주도하거나 그에 가담해온 지배계급은 계속 친일파/보수/반공/우익으로 재생산돼 왔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한국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데에 철저히 지배계급의 이해가 달려있는 ‘가해자의 땅’인 것이다.”⁴² 특히 민주화 이후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진실(眞實)이 밝혀지기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배 권력의 진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5·18은 지시한 사람이 없는 사건으로, 그래서 사과 받지도 치유되지도 못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진실의 부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과 피로를 양산하며 이는 곧 5·18에 대한 냉소로 되돌아오고 망각으로 환원된다.

학살의 망각도 학살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학살의 망각은 또한 기억의 학살이며, 역사의 학살이고, 사회적인 것 등의 학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각은 또한 사건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이다.⁴³

그러므로 망각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공범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억되고 보여지는 5·18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타협하여 ‘만들어진’ 전통이라면 이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1980년 5월 벌거벗겨졌던 광주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5·18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망각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배제되었던 존재인 여성에 대한 기억들도 재현될 수 있을 것

42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93쪽.

43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물라시옹』, 민음사, 1992, 102쪽.

이다. 이러한 점에서 5·18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으로 기억/서사 될 때 5·18의 현재화는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한승원 외, 80년 5월 광주항쟁소설집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한승원, 광주민주항쟁10주년기념작품집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공선옥, 5월광주대표소설집 『꽃잎처럼』, 풀빛, 1995.
최인석·임철우, 5·18 20주년 기념 소설집 『밤꽃』, 이룸, 2000.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5월문학총서2 소설』, 문학들, 2012.

단행본

-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권,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133-135, 218-220쪽.
김철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298-299, 302쪽.
노엘 맥아피, 이부순 역,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앨피, 2007, 111쪽.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도서출판 길, 2008, 10-11, 334쪽.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학술논문집1』, 5·18기념재단, 2006, 255쪽.
오카마리,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 2004, 37, 86, 170-171쪽.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1992, 102쪽.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 246쪽.

논문

-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4, 5-40쪽.
김양선, 「광주 민중 항쟁 이후의 문학과 문화—젠더를 축으로 한 다시 읽기의 정

- 치학」, 『여성문학 연구』 제7권, 한국여성문학회, 2007, 7-30쪽.
- 김은실, 「[머리글/14호를 내면서] 초국가적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식/언설의 정치학을 생각하며」, 『당대비평』 제14호, 생각의나무, 2001, 3-9쪽
- 김재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 (1985~1991)-상징정치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2, 1-113쪽.
- 박혜경, 「[젠더] 거울 속의 여자들—한국문학 속의 젠더 이미지들」, 『문학과 사회』 제21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08, 269-289쪽.
-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공선옥, 송기숙, 최윤, 홍희담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2, 261-280쪽
- 이경,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더의 관점으로 5·18소설 읽기」, 『여성문학 연구』 제7권, 한국여성문학회, 2007, 75-105쪽.
- 이윤정, 「5월 민중항쟁과 여성운동: 송백희 활동을 중심으로」, 『서사사회과학논총』 제4권 1호, 조선대 사회과학 연구원, 2011, 71-117쪽.
-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103-123쪽.
- 조은, 「침묵과 기억의 역사화: 여성·문화·이데올로기」, 『창작과 비평』 112호, 창비, 2001, 76-90쪽.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제47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24-254쪽.
- _____,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87-220쪽.
- 최성만, 「벤야민 횡단하기 II」, 『문학과과학』 통권 47호, 문화과학사, 2006, 373-387쪽.